

세종충남지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

✎ 백승호 기자 | ⓒ 승인 2020.12.17 18:29

| 17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 긴급 기자회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17일(목)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앞에서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외치며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 세종충남지역 긴급 기자회견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지금도 전국 어딘가의 사업장에서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고 있다. 사람이 죽었으면 일터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정부기관은 즉시 왜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잘못을 따져야 하지만 노동부는 원인을 찾기 전에 결론부터 찾는다. 회사보다 먼저 조업 재개하자고 안달이다. 죽은 노동자는 제쳐두고 회사가 돈 못 벌면 어쩌냐고 걱정이다. 회사는 든든한 노동부 믿고 걱정이 없다. 사고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 어차피 그게 사고를 예방하는 데 드는 돈보다 싸다. 여론은 언제나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다. 할 수만 있다면 덮고 묻고 사고를 은폐하고도 죄책감이 없다면 중대재해는 기업이 저지른 살인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 세종충남지역 긴급 기자회견

여는발언에 나선 문용민 세종충남본부장은 최근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대하는 자리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하여 ㉠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 ㉡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만을 쫓는 원청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청도 바뀐다, 재벌은 책임을 회피하고 중소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기업인은 처벌이 무서울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은 실제 죽음의 공포를 넘어 죽어가고 있다. ㉢ 산업재해는 예방에 중점을 뒤야 맞다. 지금 법률이 정한 안전관리도 하지 않아 그에 대한 처벌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방을 하지 않아 노동자가 죽으면 살인죄로 처벌해야 예방이 된다. ㉣ 재벌들과 기업은 결국은 또 돈이다. 라고 반박하며 끼어죽고, 떨어져죽고, 불에타죽고, 감전되죽고, 질식해죽고, 과로로 죽고, 자살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지난 21년동안 oecd 국가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이 죽어도 실행은 0.4% 밖에 안되고, 벌금 40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안전조치를 하는 것보다 벌금이 싸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죽음은 멈추지 않는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권오대, 정진희 세종충남본부 현직 임원들과 이승수 차기 수석본부장님이 일일단식농성에 참여했다.

세종충남본부는 18일(금)에 있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투쟁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 세종충남지역 긴급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 세종충남지역 긴급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 세종충남지역 긴급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입법 촉구! 세종충남지역 긴급 기자회견



백승호 기자 nanda6636@hanmail.net